

외국어로서 독일어 수업을 위한 기능문법의 필요성

박현선(한국교원대)

0.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위한 문법과 의사소통과의 관계

외국어로서 독일어(Deutsch als Fremdsprache)는 학문적인 과목으로 이제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 실수와 혼란이 있었던 출발단계를 뒤로하고, 오늘날은 안정의 단계로 들어섰다. 학문을 끌어내는 입장, 연구 방법, 학습 목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하나의 공통성이 존재한다. 바로 외국어로서 독일어의 학습과 교수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다. 다양한 견해들 가운데는 외국어로서 독일어가 독문학의 영역인지, 또는 외국어언어학의 영역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다.¹⁾ 이는 외국어로서 독일어라는 과목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그러나 과목의 여러 특성 가운데서도 논란의 여지가 없이 인정된 이 분야의 특징은 바로 낮은 것에 대한 관심과 이웃과목과의 무수한 관련을 가진 이 과목의 학문연계성이다.²⁾

이러한 토론 속에서 근본적인 역할은 항상 외국어로서 독일어 수업 내에서 문법이 담당했다. 특히 “의사소통적-화용론적 전환기” 이후에는 더욱 자주 언어학 내에서 문법에 상반된 개념으로서 의사소통(Kommunikation)을 강조를 했다.³⁾ 또한 문법에 대한 잘못된 생각 하나로서, 문법을 형태론과 통사론 또는 더 좁게는 어형변화표 정도에만 국한시켰고, 그래서 모든 경우에 문법의 전통

-
- 1) G. Henrici (1996): Deutsch als Fremdsprache ist doch ein fremdsprachenwissenschaftliche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3, 131-135.
 - 2) L. Götze (1999): Aspekt einer funktional-kommunikativen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Das Deutsche von innen und außen*. Festschrift für Prof. Dr. Ulrich Engel zum 70. Geburtstag.
 - 3) 이에 관한 토론속에서, 문법과 의사소통을 대립쌍으로 보는 입장은 잘못된 수용과 오해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보이며 숙련성과 의사소통에 목표를 두는 수업에서는 언어체계 인식이 부차적으로 설명되어지거나 또는 그 이상일 수 있다는 견해를 갖았다.(Vgl. Helbig 1997:96 그리고 Götze 1991: 162.)

적인 이해를 강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최근에는 문법의 개념들이 확장되어 즉, 한편으로는 의미론과 화용론에 흡수되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문장을 넘어서서 텍스트문법으로까지 나아감으로써, 문법의 확장된 개념이 외국어로서 독일어 영역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문법, 물론 확장된 개념으로서 이해되는 이 문법이 외국어수업에서는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오히려 문법과 의사소통은 대립쌍이 아니라 사고가 더욱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즉 의사소통적 능력kommunikative Kompetenz이라는 학습목표는 문법적 규칙의 터득까지를 포함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문법 규칙의 마스터만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전제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러나 외국어 수업에서 의사소통 지향의 수업이 문법에 대한 배척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우리는 의사소통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외국어 수업을 위해, 전통적인 문법에서 벗어나서 확대된 개념의 문법이 필요하다. 그것을 바로 기능 문법funktionale Grammatik(Vgl. Götze: 1999)⁴⁾이라고 하겠다.

1. 기능 문법에 대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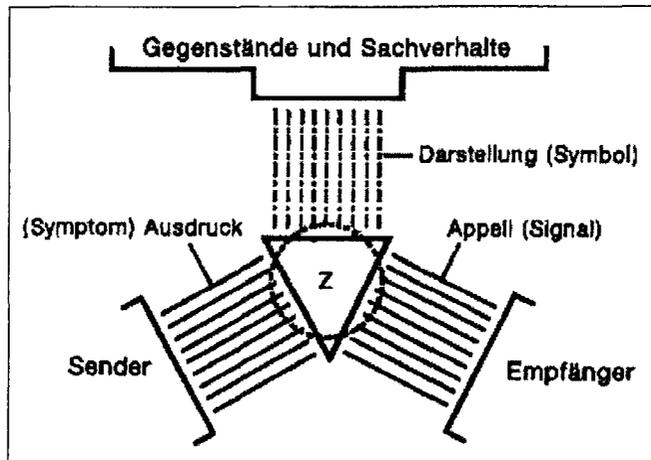
지금까지도 한 문법의 대상, 범위,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있다. 그러나 단지 음운론, 형태론, 통사론만을 포함하는 문장의 한계를 벗어나서, 문장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언어학적 요소들, 특히 텍스트에서의 문어와 구어들을 기술해야한다는 입장이 증가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이와 입장을 같이하여, 모국어나 외국어수업의 학습자들을 위한 문법이 텍스트에서 시작해

4) Lutz Götze는 전통 문법수업에서 벗어나 언어사용을 고려한 의사소통 중심으로의 방향을 전환하기위해 기능문법을 강조하고 있다. 본인 역시 Lutz Götze의 견해에 동의하며, 한국의 외국어 수업 실정을 고려하여 볼 때도 언어체계와 언어사용이 함께 연계된 의사소통 중심의 외국어 교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의미에서 Götze의 '기능문법'이라는 용어를 선택하였다. 그러나 이 기능문법은 형식을 배제한 기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연계된, 더욱 넓은 개념의 "기능문법"임을 밝혀둔다.

서, 그것으로부터 문장, 단어, 형태소, 그리고 음소로 차츰 내려오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⁵⁾

기능 개념 역시 계속 논쟁이 되고 있다. Hermann Paul의 『독일어 사전』이라는 책 속에 Helmut Henne는, 기능이란 철학적으로 볼 때,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행동과 다양한 표상들의 일치성을 하나의 공통적인 단위아래 배열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Karl Bühler는 언어학적 기호의 역할과 과업을 가지고 “상징Symbol, 징후 Symptom, 신호Signal⁶⁾”라는 언어기호의 의미적 기능들을 부여하여 그것으로부터 서술기능Darstellungsfunktion과 표현기능Ausdrucksfunktion 그리고 호소기능Appellfunktion을 제시했다.



Organon-Modell von Karl Bühler (1934)

- 5) L. Götze(1999a): Aspekte einer funktional-kommunikativen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 6) Symbol kraft seiner Zuordnung zu Dingen in der Welt, Symptom kraft seiner Abhängigkeit vom Sprecher(Schreiber), Signal kraft seines Bezugs auf den Hörer(Leser).

Popper는 이 의견에 동의하며 징후와 신호는 다른 생물체에게도 주어지는 것이지만, 인간 언어만의 고유의 기능은 서술기능Darstellungsfunktion이라고 덧붙였다.⁷⁾ 또한 Dieter Wunderlich는 의사소통적 기능에 대해서, “그때 그때의 문맥조건에 따라 한 특정한 문장의 표현은 지극히 다양한 의사소통적 기능들을 갖는다”⁸⁾고 했다.

Christian Stetter는 그의 저서 『Schrift und Sprache』에서 규칙에 의해 적절하게 말하는 것은, 표현을 어떤 특정 상황에, 또는 어떤 특정 행위관계에 적절하게 일치시키는 것을 즉석해서 판단하는 능력의 암시한다고 했다. 즉 문법적 언어능력이 의사소통 속으로 삽입된 것을 뜻한다. 말하기의 방법을 아는 것은 규칙에 적합하게 언어적 형식을 각각 그에 해당하는 행위관계의 성립조건에 잘 투영시키는 능력이다. 즉 상황에 적합하게 언어적인 표현을 형성하는 능력이 바로 말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에 적합하게 언어적인 표현이 발현되도록 작용하는 문법이 바로 광의의 기능의 개념이며, 우리가 외국어로서 독일어 영역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 문법이다.

우리가 일반언어학이나 응용언어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능의 개념들 역시 모호하고 다의미적으로 정의되어 있다. Karl Bühler의 *Organon-Modell*을 기초로해서 Jacobson und Dell Hymes는 자연 언어의 7가지 기능⁹⁾을 제시했다 :

- 표현 기능: z.B.) Ich hasse dich!
- 호소 기능: z.B.) Mach das so wie ich!
- 시적 기능: z.B.) Wo aber Gefahr ist, ist das Rettende nah.
- 접촉 기능: z.B.) Kannst du mich hören?

7) K. S. Popper (1992): *Alles Leben ist Problemlösen*. Über Erkenntnis, Geschichte und Politik. S.301.

8) “Je nach Kontextbedingungen kann die Äußerung eines bestimmten Satzes die verschiedensten kommunikativen Funktionen haben.”

9) Expressive Funktion, Direktive/appellative Funktion, Poetische Funktion, Kontaktfunktion, Referentielle Funktion, Kontextuelle Funktion und Metasprachliche Funktion.

- 지시 기능: z.B.) Da liegt ein Apfel.
- 문맥적 기능: z.B.) Die Bemerkung passt hier nicht.
- 상위언어적 기능: z.B.) Setzen Sie ins Passiv!

이에 반해 Helbig는 4가지 영역¹⁰⁾으로서 통사적 기능(문장구성성분, 부문장의 동사의 후치 등), 의미적 기능(단어의 의미, 내연, 외포), 의사소통적 기능(테마-레마, 텍스트에서 지시관계), 논리적 기능(여러 문장 속에서 발화들의 표현 등)으로 나눈다. 또한 화용론에서는 발화의도의 해석을 위해서 주로 Searle의 다섯 가지 발화의도를 중심으로 하여 언어의 기능을 정리하고 있다: 제시행위, 지시행위, 위임행위, 정표행위, 선언행위¹¹⁾. 이에 상호 인간적인 관계의 통보-기능적 국면 아래 Brinker(1983)는 텍스트의 기본 기능¹²⁾을 체보기능, 호소기능, 책무기능, 접촉기능, 선언기능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이 다양하고 다의미적으로 기능이 분류되고 있지만, 공통된 것은 화자가 자신의 발화를 통해 추구하는 통보 의도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능들을 위한 상위개념은 바로 의사소통Kommunikation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Vgl. Götze: 1999a).

2.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위한 기능 문법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학습하는 학습자들을 위한 기능 문법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의 질문은 아주 중요하다: “어떤 특정한 구조 내지는 형식 X는 의사소통 내에서 어떠한 기능을 담당하는가”. 다시 말하자면: 화자의 어떠한 목적이나 의도가 어떤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실현되어졌는가? 이 질문은 언어적 구조,

10) Syntaktische Funktion, Semantische Funktion, Kommunikative Funktion sowie Logische Funktion.

11) Assertive, Direktive, Kommissive, Expressive und Deklatative Illokutionsklasse.

12) Informationsfunktion, Appellfunktion, Obligationsfunktion, Kontaktfunktion, Deklarationsfunktion.

언어 상징의 표현적인 측면이 아니라, 대신에 화용론적인 의미에서 의사소통적 행위나 발화의 목적 내지는 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있다. 이때 언어의 기능은 순수 표시적인 도구적 기능의 수행이 아니라, Jacobson이나 Searle의 기능과 같이 다양한 발화의도를 뜻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념해야하는 것은 발화의도 즉 기능이 중심이 되지만, 그 기능을 표현하는 언어적 수단 역시 우리의 의사소통적 입장에서는 기능 연구에 포함이 된다는 점이다. 외국어로서 독일어의 영역에서는 문법이나 의사 소통이나 라는 이분법적인 선택이 아닌, 문법과 의사소통의 융합적 입장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기능 문법은 각각의 화자들이 다양한 언어 수단과 무수한 가능성 가운데 자신의 목표 설정에 적합한 언어 수단을 선택하여 구사할 수 있도록 판단 능력을 부여한다.

Götze(1999)는 외국어로서 독일어 영역을 위한 또 하나의 문제점은 통사의 범주로서 문장과 언어행위로서 발화하는 이분법적 구분에 있다고 지적한다. 이런 지적처럼, 이 두 관계는 1대 1의 대응 관계가 아니다. 언어 체계적 규칙과 의사소통-기능적 규칙은 1대 1 관계로 서로 대응시킬 수 없기 때문에 발화 의도영역에 그에 해당하는 체계적 문법 영역을 귀속시키는 것이 실제로 아주 어려운 일이다. 발화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형식화되어진다. 예를 들면, 요구 Aufforderung는 명령적(Imperative: Komm!), 부정사형(Infinitive: Garten nicht betreten!), 분사구문적 형태(Partizipialformen: Stillgestanden!), dass문장(dass-Sätze: Dass du ja nicht erst um Mitternacht nach Haus Kommst!) 등으로 표현된다. 그 때문에 기능 문법에서는 평서문, 의문문, 요구/명령문 그리고 소망문과 같은 문장의 형태를 기준으로 삼는 전통적인 문장종류의 분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다. 의도는 단 하나의 형태에 담겨지는 것이 아니라, 위의 예로 보았듯이, 다양한 형태로 한 가지의 의도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의도 '요구'는 위의 예에서 보았듯이 명령문의 형태가 아닌 의문문이나 평서문, 분사구문의 형태 등 한가지 문법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다양한 문법형태에 의해서 표현된다.

표층적 문법적 구조를 화용론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학습하는 학습자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화용론적 기능은 발화자의 의도, 화행

유형등을 파악할 수 있어야 이해되어지는데, 이런 화용적 부분은 언어체계의 규칙에 의해서가 아니라 언어사용Sprachgebrauch의 규칙에 관계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이 보다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기능 문법은 따라서 언어체계의 규칙과 언어사용의 규칙이라는 두 측면에서 설명되어야만 한다.

3. 언어체계와 언어사용

우리는 언어체계Sprachsystem와 언어사용Sprachgebrauch의 규칙을 구별할 수 있다. 일상 생활에서는 아무런 구별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자연언어의 언어체계란 아주 오랜 시간동안 변함없이 제시해 왔던 영역이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언어사용의 규칙은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의도나, 의사소통적 행위의 시간과 장소, 또는 대등한 대화와 비균형적인 일방적 권위적 대화형태와 같은 대화의 균형성, 텍스트 유형, 모국어 화자와 비 모국어 화자간의 대화 속에 나타나는 문화적인 특이성 등에 달려있다.

언어체계의 규칙은 형태-통사의 체계, 곡용이나 활용도식, 동사의 의존문법 규칙, 형용사나 전치사의 격 지배 등과 같이 확정적 체계가 그의 특징이다. 이것은 단순한 것으로 그리고 쉽게 습득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전통적 언어수업에서 언어체계의 요소를 선호했기 때문에, 주로 의사소통 능력을 중시하는 외국어수업의 목표에서는 이 언어체계 규칙이 도외시되기도 한다. 그러나 언어체계의 규칙 역시 기능적 측면에서 새로 규정하고 서술해가야 한다.

반면에, 언어적 의사소통의 중요한 부분은 언어사용의 규칙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간, 장소, 원인, 사태양식을 위한 표현 형태들, 또한 언어 행위, 발화의 다양한 총체들이 이에 속한다. 즉, 발화, 화행 또는 시간성, 인과성 그리고 양상성의 측면들, 나아가 내적 외적 언어적 지시체계들이 모두 언어사용의 규칙들로 볼 수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의 의사소통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요소들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요소가 언어사용의 규칙들이다.

언어사용의 규칙은 뭔가 복잡한 것으로 간주되며, 대화 상황에 따라, 그리고 구어나 문어의 텍스트 유형 X이나, Y이냐에 따라 또한 다르게 구별된다.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발화에서는 그 난이도가 더욱 증가한다. 먼저 우리 한국말을 외국인이 사용할 때 느낄 수 있는 어려움, 그리고 외국인이 독일어를 접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각 예로서 살펴보자.

한국말은 주어를 나타내는 조사가 이/가, 은/는이 있다. 이 조사의 사용에 있어서, 언제 어떤 조사가 들어가야 적합한지를 찾는 것은 두 가지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 하나는 문법적인 지식으로서 해당 명사의 받침이 있고 없음에 따라 “은”과 “는” 또는 “이”와 “가”의 선택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명시적인 문법 지식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은 언제 이/가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은/는을 사용하느냐는 것이다. “사과가 빨강다. (그) 사과는 맛있다.” 이 차이의 인식이 어려운 것은 그 차이가 테마와 레마의 구분으로서 언어체계의 규칙이라기보다는 언어사용의 규칙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치 한국 사람이 독일어의 부정관사와 정관사의 올바른 사용에 있어서 학습의 어려움을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언어사용의 규칙이 언어체계의 규칙보다 더 어려움을 주는 것은 그 어려움의 요인에 언어습관이나 사고방식과 같은 해당 언어 생활권에 존재하는 문화의 일면이 작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문화적 차이가 우리 일상생활의 언어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단복수의 사용이나, 주소 쓰기, 이름 표현하기, 부정을 긍정하기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차이는 문법적으로 그 지식을 이미 알고 있지만, 관습적으로 오류를 범하기 쉬운 영역들이다.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경우에서 한 예를 찾아보자.

한 불가리아 출신의 학생이 독일에 머물고 있었다. 그의 어학 실력은 기초적 문법 지식 상태로 문장을 만드는 수준이다. 그는 어느 날 집주인의 현관문을 열어주었고, 그때 그녀는 그에게 인사를 하면서, 물론 아주 중병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이들이 많이 아프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알려주었다: “Es geht bald vorüber. Sie können, Herr Petkov, ruhig laut sein.”

그 학생은 바로 신발을 벗은 채 살금 살금 자기 방으로 올라가서, 그 집주인이 다시 “너무나 과도하게 조용할 필요가 없다”고 다독겨려줄 때까지, 집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그는 *ruhig*를 그저 형용사로 인식했던 것이다. 그러나 *ruhig*는 이 텍스트 내에서는 양태사의 기능이였다. 이 경우는 언어체계와 언어사용의 규칙을 단지 1대 1로 대응시키려는 데서 기인한 오류일 것이다.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배우는 학습자에게 언어의 형식과 기능은 하나의 통합체이다. 따라서 전통적인 외국어 학습처럼 언어적 수단의 형태와 구조의 익힘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 우리는 문법지식을 전제로 하여 그것을 실용적으로 응용하여야한다. 따라서 학습자들에게 하나의 언어적 형태가 표현하는 직접적인 화행기능 이외에도 또 다른 기능(간접적인 화행)까지도 표현할 수 있도록 형태유형Formtype에서 기능유형Funktionstype으로 그 방향을 전이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이 방향의 전환이 형태유형의 도외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4. 의사소통 관점에서 학습자를 위한 기능문법의 제시 - 요구문과 양상성의 경우에서.

4.1. 문장유형의 분류 : 요구문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전통문법에서는 문장유형의 분류에 있어서 정동사의 위치나 의문부호나 느낌표와 같은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그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소망문, 명령문 또는 요구문으로 나누었다. 그러나 이러한 언어적 수단의 형태에 대한 기술만이 아니라, 의도를 반영하여야한다. 언어 문장을 통해 화자가 다양하게 나타내려고 하는 의도는 진술Aussage, 요구Aufforderung, 소망Wunsch, 그리고 질문Frage으로 나눌 수 있다. 의도에 의해서 나누어지는 문장유형은 한 가지 언어적 형태로만 제시되지는 않는다. 즉 질문의 의도는 반드시 의문문에 의해서만 실행되거나, 요구의 의도가 명령/요구문에 의해서만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구는 아주 다양하게 표현되어지는 언어-사회적 행위이다.

(1) Komm um 9 Uhr nach Haus!	Imperativ
(2) Willst du noch eine Tasse Tee?	Fragesatz
(3) Ich bekomme noch ein Bier, Herr Ober!	Aussagesatz
(4) Man nehme ein Prund Zucker und drei Zitronen.	Aussagesatz
(5) Stllgestanden! Jetzt wird geschlafen!	Partizip II / Passiv
(6) Dass du ja pünktlich in der Schule bist!	Dass-Satz
(7) Wollen wir morgen abreisen?	Fragesatz mit Modalverb
(8) Nicht rauchen!	Infinitiv

화자의 의도 “요구”를 나타내는 문장의 유형은 이와 같이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 가능하다. 그렇다면 ‘Komm her!, Gib mir das Geld!’ 와 같은 명령문 형태로서 문장 초두에 정동사가 위치한다는 전통적인 요구문에 대한 문법적 해석은 수정이 되어져야만 한다. 기능-의사소통적 문법은 따라서 구조적 기술과는 달리, 내용적인 것을 우위로 하여 출발한다: 하나의 구조 내지는 하나의 형태 X가 의사소통 내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 다시 말하면, 어떤 언어적 수단에 의해서 어떤 의도가 실현되어지는가?

따라서 형태에 의해서 문장의 유형을 구속하기보다는, 다양한 형태로 화자의 의도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학습자에게 제시해 주어야한다. 왜냐하면 화자의도Illokution을 파악해내는데는 종종 문법적 형태가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때가 우리 주변에는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언어적 행위는 명령뿐만 아니라 묻기, 청하기, 위협, 확인, 추천, 바램과 같이 다양한 언어적 가능성을 갖는다. 이러한 요구의 의도는 문법형태 명령문뿐만 아니라 의문문과 평서문 등 하나의 문장 형태에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운 발화를 한다:

- (9) Hört ihr noch was?
- (10) Könnte einer mal lauter stellen?
- (11) Man hört ja nichts!
- (12) Lauter!

- (13) Ruhe!
- (14) Wärst du so lieb und würdest etwas lauter drehen?
- (15) Bitte sei so gut und dreh etwas lauter.
- (16) Was hat der jetzt gesagt?
- (17) Das ist zu leise.
- (18) Stell endlich lauter oder ich gehe.
- (19) Ihr wollt offenbar, dass ich nichts höre.
- (20) Ich frage mich, warum ihr nicht lauter stellt.
- (21) Ich meine, man sollte lauter stellen.
- (22) Ach würde doch einer bloß mal lauter stellen.

위의 예와 같이, 묻기(9, 10, 14, 16), 청하기(15), 위협(18), 확인(11, 17), 명령(12), 외침(13), 질책하기(19), 충고/추천하기(21), 궁금증에 대한 표현(20),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22) 등으로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하기를 요구하는 우리의 의향은 여러 가지이다. 이때 문법적인 형태는 종종 어떤 지시Hinweis가 되어 줄 수는 있지만, 일괄된 문법형태로 그 의도가 표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능문법에서는 문법형태 중심보다는 오히려 그 의미를 부각할 수 있는 다른 언어적 수단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 즉 수행적 동사performative Verben (ich *bitte* Sie, stellen Sie lauter) 또는 뉘앙스를 주는 불변화사 (Stellt *doch mal* lauter), 양태사와 양태 조동사(*möchten* Sie nicht lauter stellen - jetzt *sollten* wir *aber mal* lauter stellen)와 같은 어휘적 수단으로 발화의도를 부각시켜준다. 이와 같은 기능은 부사나 억양, 악센트, 접속사나 부분장 사용(*dass* du mir ja lauter stellst), 감탄사 등을 통해서도 수행되어진다. 이처럼 기능문법은 하나의 의도를 충분히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들을 문법형태나 문장형식에 구속받지 않고 함께 상호 보조적으로 충족시킴으로써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을 배양시킨다.

4.2. 양상성을 표현하는 언어적 수단

사건이나 행위의 양식을 나타내는 양상성Modalität은 독일어에서 아주 다양

한 방법으로 표현된다. 동사의 법 Modus(직설법, 접속법, 명령법), 화법조동사(wollen, sollen, können, müssen, dürfen, mögen, brauchen), 양태동사(drohen, pflegen, sich trauen, scheinen, vermögen, versprechen + zu), 양태부사(gern, glücklicherweise, irgendwie, so, vergebens u.a.), 양태불변화사(ja, denn, doch, schon, u.a.) 그리고 *werden* + *Infinitivegefüge*의 양태적 사용과 *meiner Meinung nach* 나 *unseres Erachtens*와 같은 양태적 통사체/어휘군은 모두 양상성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 다양한 언어적 수단들은 그때 그때의 화자의 의도에 맞게 하나의 진술로서 형성되어진다. 이 다양한 방법과 뉘앙스 영역은 외국인인 학습자에게는 커다란 어려움이 되기도 한다. 더욱 어려움을 주었던 것은 과거의 양상성에 관한 수업이 이 다양한 요소를 늘 분리시켜서 소개하며, 이 언어적 특징이 동일하게 나타내고 있는 양태의 범주에 그것을 하나로 묶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학습자들은 양상성의 수업이 아닌 다른 문법 영역의 수업에서 — 예를 들면, 시제수업 — 양태의 의도를 만나는 학습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가장 좋은 예가 바로 *werden* + *Infinitivgefüge*의 양태적 사용이다:

(23) Sie wird gestern in Tokio angekommen sein.

미래형태를 가지고 과거의 사태와 그 사태의 완료를 표현하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는 외국인 학습자는 그다지 많지 않다. 더욱이 이 문장은 시간부사 'gestern'에 의해서 과거의 요소로 표식되는 반면, 시제 형태는 미래 형태를 통한 완성을 제시했다. 만약 이 문장에 'möglichlicherweise', 'sicherlich', 'nämlich'와 같은 양태사가 시간부사어 앞에 제시되었더라면 학습자들은 이 문장의 양태적 양상을 빨리 분명하게 알아냈을 것이다.

전통문법은 그 형태가 어떤 기능을 갖는지 상관없이, 형태를 중심으로만 설명되어졌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언제나 시제의 영역에서만 설명되었고, 그로 인해 학생들은 위 문장에 시간성을 부여하려고 애를 쓰고, 그것을 번역해 옮길 때 어려움을 겪곤 했다. 그러나 기능중심의 문법 수업에서는 '하나의 기

능이 어떤 형식으로 실현될 수 있는지' 그 다양한 형식의 가능성을 기능 중심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미래형 2식 Futur II은, 그 문장에 양태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시제의 영역에서보다는 양태의 영역에서 다루어져야 문법과 기능이 보다 효율적으로 학습자에게 수용될 수 있다: 미래형 2식은 우리에게 시제형식으로 보다는 양태의 표현수단이기 때문이다.¹³⁾

양상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언어수단을 익히는 것 이외에도 오히려 외국인으로서 학습자들에게 더 큰 학습 어려움으로 작용하는 것은 양상성에 담긴 뉘앙스의 파악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24) Sie soll das jetzt erledigen.

(25) Sollte das nicht mehr wahr sein?

(26) Er soll sie gestern am Bahnhof gesehen haben.

이 예문들은 구조 그 자체로부터는 텍스트나 문장에 담긴 그때 그때의 의미 차이를 인식할 수 없고, 언어사용 속에서 그 기능을 다루는 문제이다. 예문 (24)과 (25)는 객관적인 사태 관련적 사용이다. 예문 (24)는 요구를, 예문 (25)는 추측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예문 (26)은 화자 관련적인 주관적 사용으로 볼 수 있다. 예문 (26)은 제 3자의 표현을 다시 서술하고 있다. 이처럼 문장유형과 발화자의 의도가 다르게 사용된 문장의 수용에 있어서, 사태의 주관적 또는 객관적 표현이라는 언어사용과 관련된 의미해석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문법의 암기보다는 분명 더 어려움을 느끼게 할 것이다.

13) 이미 많은 견해속에서 미래 시제형은 시제보다는 양태로 규정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제시되고 있다. 이는 형태를 중심으로 하기 보다는 분명 미래 시제형의 쓰임이나 화자 발화 의도에 의한 규정이다. 이러한 규정은 미래 시제형을 시제라는 문법장르를 벗어나서 양태의 영역으로 넘김으로써 형식적 문법중심이 아닌 의사소통을 위한 기능문법으로 미래형의 쓰임을 이해한 것으로 간주된다.

다양한 수단으로 표현되는 양상성의 기능들을 외국인 학습자가 보다 쉽게 그 의도를 파악하게 하기 위해서, 주로 텍스트에 나타나는 화법조동사가 표현하는 상위개념에 어휘적 양태사를 결합시켜서 예컨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 Aufforderung : sollen, müssen + doch, nur, ruhig

(27) Du *musst* mich *doch* lieben!

- Vermutung : dürfen, können, sollen + doch, wohl, schon

(28) Er *kann wohl* nach Hause gehen.

- Wunsch : konjunktiv II + bloß, doch, nur

(29) *Hättest* du *bloß* nichts gesagt!

- Widerspruch : werden + allerdings, doch, doch nicht, erst

(30) Du *wirst* jetzt *doch nicht* abfahren!

- Überraschung : sein + aber, denn, ja, vielleicht

(31) Das *ist aber* eine Menge Geld!

이와 같이 텍스트에 나타나는 화법조동사가 표현하는 상위개념에 어휘적 양태사를 결합시키는 것은 발화의도의 강한 강조와 함께 학습자들에게 텍스트 내에서 문장을 그 기능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된다. 예컨대 문장 (27)에서와 같이, *müssen* 화법 조동사의 요구의 기능을 양태사와의 결합으로 두드러지게 해 줌으로써, *sollen* 이나 *müssen*이 같은 의지에 의해 결정되는 필연이나 인과적 필연등의 뉘앙스 차이를 다양한 양태사와의 결합을 통해서 더욱 두드러지게 구분하여 익히게 할 수 있다.

양태사는 문장속에 전달되는 내용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더욱 분명히 해준다. 만약 양태사가 문장에서 빠지면, 그 문장은 그 속에 담긴 바램, 요구, 타이

름, 놀람 등의 의도 전달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못할 수 있다.

- (32) Was machst du **denn** hier? (Überraschung)
- (33) Was machst du hier? (neutrale Frage)
- (34) Das ist **einfach** nicht wahr! (Ärger)
- (35) Das ist nicht wahr. (neutrale Feststellung)

예문 (33)과 (35)는 문장유형대로 질문과 확인의 표현에 불과하지만, 예문 (32)와 (34)처럼 양태사가 포함됨으로써, 질문과 확인의 표현 이외에도 놀람과 분노와 같은 발화의도를 전달 할 수 있다.

언어적 표지들 간에는 흔히 고정된 지배관계가 성립한다 (Sökeland: 1980). 이를테면 일정한 불변화사들은 발화의 통보기능을 위해 실현된 문장유형보다 더 중요하다(Brinker: 19974):

- (36) Mach das Fenster zu!
- (37) Geh doch mal zum Arzt!
- (38) Sollen wir das Auto nehmen?
- (39) Kannst du denn nicht das Fenster zusammen?

(36)의 예 '창문을 열어라'에서는 화행유형 명령이 명령형 요청문에 의해 암시되고 있지만, (37)의 예 '의사에게 한번 가 봐라'에서는 불변화사 *doch*와 *mal*이 명령형태 *geh*의 행위의미를 명령에서 부탁으로 완화시켜준다. (38)의 예는 '우리 자동차를 타고 갈까?'와 같이 의문문형태로서 질문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39)의 예 '너는 도대체 창문을 닫을 수 없니?'에서는 불변화사 *denn*과 *nicht*가 요구의 특성을 확실히 더해주고 있다. 문장유형 의문문형태보다도 불변화사가 그 의미를 더 지배적으로 강하게 나타냄으로써 강한 요구문이 되고 있다.

Sökeland는, 불변화사와 운율적 자질과 명제 내용은 명시적 수행공식적인 문장유형이나 문장모형보다 더 강한 언어적 표지들Indikatoren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예 (37)과 (39)처럼, 문장모형들은 그 유형과 일치하는 언어적 표지가

사용될 경우 바로 어떤 발화의 실제적인 발화수반력을 표시하게 된다.

이처럼 명시적 문장형태인 문법과 어휘적 수단을 함께 연계시키는 통합적 기능문법의 학습은 학습자들이 양상성 학습이나 언어사용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

5. 결론

문법은 항상 수단일 뿐 외국어 수업의 목표는 아니다. 그러나 문법이 가지는 유익한 기능은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더욱 좋은 질로 개선시키는 것이다. 교수법을 위한 문법으로서 “학습자 문법Lerngrammatik”은 일반 언어학의 주제연구와는 그 입장이 다르다. 학습자를 위한 문법은 언어학적인 소재가 먼저 교수법적인 진도Progression에 맞게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분류되어야 하며, 발화의 기능을 중심으로 하여 그 각각에 적합한 언어적 수단들을 정리해야 한다. 위의 예에서 양상성을 설명함에 있어서 언어학적인 소재가 화법조동사에 국한되지 않고 양상을 표현하는 기능을 지닌 다양한 언어학적인 소재들을 수집하여 함께 통합시켜 제시해 보였듯이, 형식은 기능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규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사소통의 목표를 위해서는 문법규칙 뿐만 아니라 화용의 규칙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습자를 위한 문법은 형식에 치중된 문법이 아닌, 언어 내·외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포괄적 기능문법이다. 이러한 학습자를 위한 기능문법은 외국어로서 독일어에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며, 전통문법과는 달리 외국어로서 독일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그 방안을 제시해 주며, 나아가 외국어로서 독일어가 다른 일반 언어학과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 기본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전수해주는 것이 우리의 외국어 수업 목표일 때, 문법적인 규칙지식이란 이를 위한 전제 가운데 하나이다. 의사소통을 위한 발화의 구성 요소들은 문법만이 아니라, 화자의 발화 의도, 나아가 표현의 상

황 적합성 그리고 문화 특수적 요인까지를 폭넓게 포함한다. 따라서 우리의 외국어 수업은 언어형식의 측면인 규칙 전달에 그치지 않고 언어사용까지 함께 고려하여야한다. 언어 형식과 기능적 측면은 완전히 분리시킬 수 없으며, 두 요소는 서로 함께 융합되어져야만 의사소통 능력의 배양이라고 하는 학습목표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전적으로 형식 중심의 문법만을 강조하는 수업이나 또는 문법을 도외시한 언어사용 중심의 편중된 수업은 의사소통 중심의 수업에 합당한 방법이 못된다. 여기에 제시된 기능문법은 전통문법과는 달리 형식중심에서 전향한 기능중심을 강조한 기능문법이지만, 이 기능문법은 형식의 배척이 아니라, 형식과 연계성을 지닌 기능문법의 제시라는 점을 숙지하여야한다. 형식과 기능, 상황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의 고려는 “외국어로서 독일어” 영역 내에서 교수법적 문법 연구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하는지 그 분명한 지표가 되어 줄 것이다.

참고문헌

- Brinker, K. (19974): *Linguistische Textanalyse. Eine Einführung in Grundbegriffe und Methoden*. Berlin.
- Engel, U. (1988): *Deutsche Grammatik*. Heidelberg.
- Götze, L./ Hess-Lüttich, E. (1993): *Grammatik der deutschen Sprache. Sprachsystem und Sprachgebrauch*. Gütersloh.
- Götze, L. (1991): Grammatik und Kommunikation - ein Widerspruch? *Deutsch als Fremdsprache 3*, S. 161-163.
- _____ (1999): Aspekte einer funktional-kommunikativen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Katny, Andrzej/ Schatte, Christoph (Hg.): *Das Deutsche von innen und außen*. Festschrift für Ulrich Engel zum 70. Geburtstag. Poznan
- _____ (1999a): Eine funktionale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In: skibitzki, Bernd/ Wotjak, Barbara (Hg.): *Linguistik und Deutsch als Fremdsprache*. Festschrift für Gerhard Helbig zum 70. Geburtstag.
- Götze, L./ Suchsland, P. (1999): Am Ende einer Debatte. *Deutsch als Fremdsprache 2*, S. 3-9.

- Helbig, G. (1997): Grammatik als kommunikativ-pragmatischer Sicht? In: Rosengren, J. (Hg.) *Sprache und Pragmatik*. Lund, S. 11-41
- _____ (1998): Was ist und was soll eine Lern(er)grammatik? *Deutsch als Fremdsprache 2*, S. 103-112.
- Henrici, G. (1996): Deutsch als Fremdsprache ist doch ein fremdsprachenwissenschaftliches Fach. *Deutsch als Fremdsprache 3*, S. 131-135.
- Hymes, D. (1979): *Zur Ethnographie der Kommunikation*. Frankfurt/M.
- Jacobson, R. (1969): *Kindersprache, Aphasie und allgemeine Lautgesetze*. Frankfurt/M.
- Mulo, Farenkia, B. (1996): Aspekte einer kommunikativ-funktionalen Grammatik aus der Fremdperspektive. *Deutsch als Fremdsprache 3*, S. 156-159.
- Paul, H. (1992): *Deutsche Wörterbuch*. Tübingen. S. 301
- Popper, Karl S. (1994): *Alles Leben ist problemlösen*. München/ Zürich. S. 75
- Rug, W./ Tomasyewski, A. (1993): *Grammatik mit Sinn und Verstand*. München.
- Searle, J. R. (1979): *Expression and Meaning. Studies on the Theorie of Speech Acts*. Cambridge.
- Sökeland, W. (1980): *Indirektheit von Sprechhandlungen*. Eine linguistische Untersuchung. Tübingen.
- Stetter, C. (1997): *Schrift und Sprache*. Frankfurt/M. S. 91-97.

Zusammenfassung

Die Notwendigkeit einer funktionalen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Park, Hyun-Sun(K.N.U.E.)

Das Deutsche als Fremdsprache hat sich als akademische Disziplin etabliert; es hat seine - von vielerlei Irrungen und Wirrungen begleitete - Startphase hinter sich und

ist in eine Phase der Konsolidierung eingetreten.

Bei aller Unterschiedlichkeit der Ansätze, Forschungsmethoden und Lernziele gibt es doch eine Einheit in der Vielfalt, was angesichts der erst wenige Jahrzehnte alten Disziplin erstaunt. Im Zentrum stehen nach allgemeiner Auffassung die Theorie und Praxis des Lehrens und Lernens/ Erwerbens des Deutschen als Fremdsprache; unterschiedliche Auffassungen bestehen vor allem darüber, ob Deutsch als Fremdsprache ein germanistisches oder aber ein fremdsprachenphilologisches Fach sei. Unbestritten sind dagegen Fremdperspektive und Interdisziplinarität der Disziplin mit zahlreichen Bezügen zu Nachbarwissenschaften.

Eine wesentliche Rolle in der Diskussion spielte stets die Rolle der Grammatik im fremdsprachlichen Deutschunterricht. Freilich hat die Diskussion ergeben, dass dieses in Wahrheit eine Scheinalternative ist, die auf einer Reihe falscher Annahmen oder Missverständnissen beruht, vor allem jenen, im Unterricht komme es ausschließlich oder zumindest vorrangig auf Fertigkeiten und Kommunikation an, nicht oder nur am Rande auf die Vermittlung sprachsystematischer Erkenntnisse.

Durchgesetzt hat sich heute freilich die Erkenntnis, dass Grammatik, verstanden in diesem weiten Begriffssinn, aus dem Fremdsprachenunterricht nicht zu verbannen ist. Weiterhin dürfte Einvernehmen darüber herrschen, dass Grammatik und Kommunikation keinen Gegensatz darstellen, vielmehr das Lernziel kommunikative Kompetenz die Beherrschung grammatischer Regeln einbezieht, wenn nicht voraussetzt.

Der Funktionsbegriff ist umstritten. Der Oberbegriffe für alle Funktionen wäre Kommunikation. Für unser Verständnis einer funktionalen Grammatik für Lernende des Deutschen als Fremdsprache ist die entscheidende Frage, welche Funktion in der Kommunikation eine bestimmte Struktur spielt. Das Ziel oder der Zweck der kommunikativen Handlung steht im Mittelpunkt.

Wir meinen, dass auch jenseits des deutschen Sprachraums Form und Funktion des sprachlichen Zeichens eine Einheit darstellen und im Unterricht nicht getrennt werden können. Zuerst lernen wir die Formen und Strukturen sprachlicher Mittel kennen, und danach werden wir sie praktisch an: Regelwissen, aber Versagen in der Kommunikation.

Die Beispiele der sprachlichen Möglichkeiten der Satzarten unter funktionalem

Aspekt und des Ausdrucks der Modalität im Deutschen machen die Notwendigkeit eines funktional-kommunikativen Ansatzes einer Grammatik für Deutsch als Fremdsprache deutlich. Es belegt zugleich, dass - unter dem Primat des Didaktischen - die Grenze von Grammatik und Lexikon überwinden werden muss, um den Lernenden wirkliche Erklärung und Lernhilfen zu bieten.

[검색어] 기능문법, 문장유형, 양상성

Die funktionale Grammatik, Satzarten, Modalität

박현선

137-907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60-4 번지

한신타운아파트 801호

hysunpark@yahoo.co.kr